

“군자의 덕은 바람,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⑤1 도사요괴 물리치는 손오공 일행

진실한 종교인이라는 분들은 대체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불교계에도 수많은 감동적인 영험담이 있지요? 그러한 영험의 영역이야말로 종교의 가장 귀중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지요.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처님과 보살님의 큰 가피를 힘입어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이야기,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런 영험에만 주로 의존하는 종교는 건강치 못한 모습을 보이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에 의해 큰 영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주로 의존하려고 해서는 또 안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 불보살의 가피를 간절히 기원하는 신앙심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불확정성의 세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잘 해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늘 겸허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한 실재를 통한 건강한 삶,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믿음,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칫하면 건강한 믿음을 넘어서서 교만한 확신을 내세우며, 신비한 현상들을 과대포장하여 내세우는 맹신과 광신의 모습을 보일 위험성을 모든 종교가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합리성이라는 측면이 뛰어난 불교는 그런 위험성이 좀 덜하지만 위험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현상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태도이지요. 부처님께서 “이것은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옹호하는 건전한 태도가 아니라 말 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겸허하게 말하라 가르치셨지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라고 겸허하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진리를 옹호하는 건전한 태도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처님!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도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겸허함을 지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야”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그 진리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을 통해 증명을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더더욱 이런 태도를 취



그림 · 최주현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을 통해 증명되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귀신’의 문제지요.

앞 이야기에서 나철계님 아버지 이야기는 저의 실제 체험을 좀 각색한 것이지요. 젊은 시절 수행한다고 무덤에 가서 지낸 날이 실제로 꽤 많습니 다. 그래서 삼패선생은 가끔 “무덤에서 여러날 잤다”라고 말하곤 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삼패선생의 체험담이 아닙니다. 은근히 “옛날엔 나도 이렇게 한가닥 했어”라고 빠지는 티를 좀 내긴 했지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귀신과 같은 문제는 귀신을 잡아야 우리 앞에 확실히 보여주지 않는 이상 참이다 거저이다가 판별이 불가능한 문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적인 증거를 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나철계님의 아버지가 그토록 확신하던 체험도 다르게 설명될 수 있었지요. 여러 사람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는 정말 내 놓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겸허하게 말해야 되고, 가능하면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귀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귀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꼭 공통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것은 ‘한’입니다. 즉 한 맺힌 존재가 죽어서도 죽음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어떤 간섭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런 ‘한’이라는 정신적 에너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 줄거리에서 그렇게 한이 맺힌 국왕의 귀신이 등장하지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의형제까지 맺었던 도사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라 빼앗기고, 부인 빼앗기고... 기타 등등 모든

왕이 우물에 박힌 이유 나와 현장법사 일행의 지혜로 해결 도사요괴는 문수보살의 사자

것을 빼앗긴 오계국의 국왕이 눈물로 호소하네요. 그래도 국왕 귀신이라 그런지 물리적인 힘도 좀 쓰는 귀신...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까지 남기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호소하니 마음 약한 현장법사가 모르쇠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요괴와 귀신 잡는 퇴마 전문가 손오공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요. 손오공도 이런 일이라면 신바람이 나는 체질이지요. 슬며시 빼는 척 하면서도 가까이 나서게 되고, 그래서 국왕의 원한 풀이 곳이 한마당 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서유기의 줄거리에서는 굶으로 끝나지 않는군요. 굶이란 본디 귀신의 한을 풀어 줘서, 그 귀신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잘 떠나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으로 등장했던 국왕이 완전히 되살아난다는! 그래서 나라 찾고 부인 찾고 자식 찾고... 완전한 해피엔드네요. 그렇게 만드는 손오공의 활약이 또 눈부신데, 그 백미는 역시 저팔계 욕심을 부추겨서 국왕 시체를 우물 속에서 건져내는 거죠. 저팔계, 보물 있다는 말에 속아서 우물 속에 들어가 물 줄줄 흐르는 시체 업고 나오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크크크~하는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요? 흠, 나철계님도 슬쩍 꼬드겨서 그런 일 한번 시킬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삼패선생 정말 유쾌해져서 사래선생이 될 것도 같은데 말이지요. 하하.

그런데 말이지요, 저팔계가 당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이야기에선 저팔계의 복수가 또 빛나는 대목이지요. 시체를 건져내 돌아와 보니, 시체가 전혀 손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용왕이 잘 보관을 했다는 배경이 있죠. 현장법사 외전에서 현장법사의 아버지 시체를 용왕이 잘 보전했던 것과 같은 경우네요. 그 시체를 빌미로 저팔계의 복수가 작열하죠. 손오공이 목숨을 되살릴 수 있다고, 그런데 귀찮아서 안하는 것이라고, 슬슬 현장법사를 부추기거나 마음 착하고 또 귀얄은 현장법사가 손오공을 닦달하네요. 못한다고 하니 머리에 조여대는 긴고추까지 외워가면서 닦달을 하니 손오공 당할 뻔 재주가 있네요? 결국 천상세계로 올라가 태상노군에게서 구전환혼단(九轉還魂丹)을 얻어오게 되죠. 한 알 안주면 재미없다는 협박성 멘트를 슬슬 날려서 얻어낸 것이니 거의 감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손오공의 행패가 워낙 심했기에 태상노군도 “에잇!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네!”하는 심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하. ‘구전환혼단’이란 이름은 아홉 번의 신비한 제약과정을 거친, 혼백을 되돌리는 단약이라는 뜻이겠네요. 그 단약 얻어다 죽은 국왕의 입에 넣었는데, 시체가 삼킬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손오공이 뽀뽀하면서 숨을 불어 넣어 환약을 넣기지요. 이 장면은 저팔계가 물 똑 똑 떨어지는 시체 우물 속에서 업고 나오는 장면과 쌍벽을 이루는 멋진 장면 아닐까요? 물 속에서 건진 시체 업은 저팔계, 국왕 시체에 입 맞추는 손오공... 그림 좋죠? 아무튼 저팔계 무시해선 안 되겠어요. 뒤끝이 아주 무섭군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순자(荀子)의 말이 생각나네요. 순자는 소인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죠. 소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리나 승냥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과 마찬가지로네요. 군자에게는 좀 잘못을 해도 군자답게 용서를 해 주지만, 소인은 절대 용서가 없대요. 그래서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소인은 두려워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뭐 저팔계가 꼭 소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칭해 보이는 저팔계가 앙심을 품으니 정말 기묘한 꾀를 내어 손오공을 골탕 먹이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라는 이야기지요. 저두 나철계님 합부로 놀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마찬가지로 나철계님이 소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명칭해 보인다면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강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하하~

여차여차하여 국왕 살아나고, 왕노릇하는 도사요괴를 물리치는데, 이번에는 문수보살님이 등장 하시네요. 도사요괴의 정체가 바로 문수보살님이 타고 다니는 사자라네요. 예전에 문수보살님이 스님으로 화현하여 이 나라에 들리셨을 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문수보살님을 물속에 처박아 둔 과보를 받느라 이런 사단이 벌어졌고, 사자가 그 역할을 하느라 잠시 도사분장하고 나왔던 거라네요. 우~. 문수보살님은 뒤끝작열보살님? 그게 아니라네요. 부처님께서 공정하게 인과를 집행하신 거라니... 뭐 할 수 없죠. 아무튼 과보는 털끝만큼 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니, 그리고 스님을 학대하고, 선지식을 괴롭힌 죄야말로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이겠지요. 그러니까 삼일 목숨에 고생시킨 죄보다 삼년을 우물 속에 처박히는 것이겠고요. 너무 죄악이 뿔뿔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삼패선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품이나 식견을 가진 사람을 푸대접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해를 가한대거나 하는 것은 참으로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그 죄악의 정가 일그러진대거나, 올바른 길에 서지 않는대거나 하는,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아주 불행한 결과를 낳거든요. 반대로 그런 분들을 공경하고 높이 받드는 것은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시켜, 큰 도약을 이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옳은 말을 하는 스님을 목숨에 처박았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본을 보겠지요? 훌륭한 사람을 무시하는 풍조가 일어나겠지요? 그런 풍조가 차츰 아래로 퍼져보세요. <논어>에는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바람 부는 방향으로) 눕게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의 행위는 바로 백성의 모범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왕의 행위 하나가 바로 그 나라 전체를 우물 속에 처박아 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왕이 우물 속에 처박힌 것은 그런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행히 현장법사라는 덕 높은 스님을 만나 그 잘못을 고쳐서 나라가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지, 그런 복된 인연이 없었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더 구렁텅이에 처박혔겠어요? 덕있는 사람이 지나는 곳은 저절로 그 혜택을 받는 법이니, 현장법사 일행의 수행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히는 대목! 정말 온전한 해피엔드! 복원을 누리 이들의 열렬한 환송을 뒤에 두고 다시 힘차게 나아갑니다.



면 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2015 불교국제박람회 ‘입선’ 수미단, 단집, 법상, 경락 외 법당장엄 일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1-276-5251 / 010-6857-0108

藏拂園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명匠

天鐘社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

홍법사 청동대불 (26m)
수종사 범종